“1만 수계 시대 개막…동국 미래 100년 향해 전진”

동국대, 건학 120주년 기념식
김민석 총리 등 700명 동참해
120주년 맞아 새 엠블럼 선포
‘석전 박한영 전집’ 전달식도
“동국 글로벌 스탠더드 나아가
세계 위한 불교대학 가치 실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동국대는 지난 120년간 35만 동문을 배출하며, 민족의 자주독립과 조국의 산업화·민주화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는 ‘동국 글로벌 스탠더드’를 향해 나아가 ‘세계 속의 민족대학’, ‘세계를 위한 불교대학’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동국대는 5월 7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건학 1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120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기념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불영 자광 대종사, 원로의원 두산 일면 대종사,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호계원장 정묵 스님,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 등이 참석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주호영 국회부의장 등 정관계 인사와 강석우·소유진·김인권·장미희·홍진경 등 동문 문화예술인, 고액기부자 등 700여 명이 동참했다.

윤재웅 총장은 기념식사를 통해 종립대학으로서 청년 불자 육성에 앞장설 것을 천명했다. 윤 총장은 “120년 역사상 최초로, 학생 1만명 수계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동국에서 일어나는 전법의 불길이 전국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종립 동국대부터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숙원사업이던 로터스관 신축공사가 시작됐다”면서 “2028년 완공되면 동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 로터스관 대작불사가 원만성취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고 사부대중에게 요청했다.

선지식들의 정신을 기리는 사업도 소개했다. “건학 120주년을 맞아 큰 스승들을 자랑스럽게 모시는 일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밝힌 윤 총장은 “석전 박한영 스님, 만해 한용운 스님, 김법린과 백성욱 두 총장 선양사업을 필두로 ‘동국정신에 대한 자긍심의 공유와 확산 사업’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날 동국대는 ‘석전 박한영 전집’ 전달식 행사도 함께 진행해 의미를 더했다.


동국대가 5월 7일 건학 1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새로운 미래 100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할 것을 다짐했다.

돈관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동국 발전이 불교 중흥이요 불교 중흥이 동국 발전이라는 발원은 동국인 모두가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풀어가야 할 화두”라며 “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 온 120년의 역사와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동국의 힘은 사람”임을 분명히 한 돈관 스님은 “교수와 직원의 헌신, 동문들의 성원, 학생들의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동국이 있었다”며 “새로운 동국의 100년을 향해 모든 구성원이 더 큰 지혜와 자비, 더 큰 실천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AI시대에 발맞춰 ‘창의적 혁신’에 나서줄 것을 동국대에 주문했다. 스님은 “과학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를 중시하는 불교적 인문 정신은 더욱 절실해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AI와 첨단 기술을 불교적 가치와 융합하는 ‘창의적 혁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대학의 자생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와 제도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종단 역시 역량을 결집해 동국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치사를 마친 진우 스님은 돈관 스님과 윤 총장에게 학교발전기금 1억원을 전달해 눈길을 끌었다.

내외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김민석 총리는 “동국대의 AI 비전인 동악 플랜은 초격차 AI 인재 양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견인할 것”이라며 “호국불교의 전통, 명상을 통한 마음의 평화라는 동국대의 저력은 다가올 100년 민족의 미래를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학사부터 박사까지 모두 동국대를 졸업했음을 밝힌 주경 스님은 “120년 전 우리 선사들께서 교육 구국의 기치를 드높였던 이유는 ‘지혜와 자비’를 갖춘 인재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때문”이라며 “우리가 함께 모은 이 원력이 동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웃종단을 대표해 관음종 종정 홍파 대종사는 “부처님을 모시고 탑을 세우는 불사도 중요하지만 동국대가 세계적으로 발전하는 인재 불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전기금 5000만원을 약정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동국대학교가 걸어온 명예로운 발자취는 단순한 학문의 전당을 넘어 불교적 가르침, 섭심과 자비를 바탕으로 인재를 양성해 온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소중한 기록”이라고 상찬했다.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총동창회는 모교와 동반 성장의 파트너십을 유지하면서 성장하는 후배들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모교의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아 새로운 엠블럼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새 엠블럼은 동국대의 상징인 코끼리를 형상화했다.

“불조 혜명 바르게 잇겠습니다”…종덕·현덕 법계 품서

5월 7일, 조계사 대웅전서 품서식
비구 64명 · 비구니 45명 총 109명

승랍 25년 이상, 1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109명의 스님이 종덕·현덕 법계를 품수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위원장 법산 스님)은 5월 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덕·현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하고 비구 64명, 비구니 45명에 종덕·현덕 법계를 상징하는 법계증과 19조 가사를 수여했다.


조계종 법계위원회는 5월 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종덕 · 현덕 법계 품서식’을 봉행하고 비구 64명, 비구니 45명에 종덕 · 현덕 법계를 상징하는 법계증과 19조 가사를 수여했다.

이날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출가할 때 세웠던 그 서원대로 위로는 생사해탈의 본분사를 해결하고 법등을 전승함에 불퇴전의 신심으로 정진해야 할 것”이라며 “아래로는 중생을 연민히 여기는 대자비심을 발해 고통받고 상처입은 세간의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 정법으로 교화하고 그 아픔을 치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에서 “대중을 감화시키고 한 걸음 한 걸음으로 후학에게 길을 보여주는 참된 스승이 돼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진우 스님은 “종단과 한국불교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더욱 깊은 성찰과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원로와 중진스님들의 지혜와 원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님들이 종단 안정과 화합, 수행가풍의 진작, 전법교화의 새로운 길을 여는 데 큰 힘이 되어달라”고 했다.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과 법계위원 스님들은 1급 승가고시 수석합격자인 비구 혜공·비구니 혜심 스님에게 법계증을, 도심 스님과 덕유 스님에게 가사를 대표로 수여했다.

정대 후 새 가사를 착의한 스님들은 중덕 법계 품수자인 자오 스님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불조 혜명을 바르게 잇고 화합과 수행으로써 종단 발전을 위해 용맹정진하며 인천의 사표로서의 위의를 항상 갖추고 중생구제 원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서원했다.

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3급 승가고시를 합격한 비구 스님 85명, 비구니 스님 46명 등 총 131명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중덕·정덕 법계품서식도 진행했다.

한편 품서식에 앞서 조계종 고시위원회는 ‘불기 2570(2026)년 상반기 승가고시 수석합격자 시상식’을 개최하고 1·3·4급 승가고시에 수석 합격한 6명의 스님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올해 상반기 조계종 1급 승가고시에서 혜공 스님과 혜심 스님이 수석을 차지했다. 임은호 기자 · 박지운 수습기자

“보문사 용왕대재, 국가 행사로 승화되길”

진우 스님, 5월 3일 초재 법문
6월 11일까지 매주 일요일 법석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사진〉이 강화 보문사가 봉행하는 수륙용왕대재가 국가적 행사로 승화되길 기원했다.

진우 스님은 강화 보문사(주지 원경 스님)가 5월 3일 극락보전 앞에서 봉행한 수륙용왕대재 초재법회에 법사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참석자들과 선명상을 함께한 후 법석에 오른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보문사는 이미 최고의 기도도량이지만 앞으로 세계적인 도량, 나아가 국가적 수륙용왕대재 도량으로 승화되길 바란다. 용왕대재를 국가적 행사로 발전시키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관세음보살을 믿는다는 것은 외부 존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체를 자각하는 것”이라며 “용왕대재를 지내는 것은 외부 신에게 비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의 선한 마음을 일깨우는 수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길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라며 “참선과 염불, 명상, 기도는 마음을 다스리고 업의 반복을 끊는 수행”이라고 설명했다.

4월 24일 입재한 보문사 용왕대재는 △5재 5월 31일 전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6재 6월 7일 광우 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한 후 6월 11일 회향한다.

강화 보문사=여수령 기자

최고의 연등만을 고집해 온
대광불교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광불교
010-9446-1862 | 010-2788-7270
031)768-7270 | 031)768-7271
E-mail : hskhsg@naver.com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연등 자동 승강장치 시공



연화등 공단등